



제4회 인천 실내&무도[武道]아시아경기대회  
4th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Incheon 2013

2013년 6월 29일~7월 6일(8일간)



굿모닝  
Good Morning  
INCHEON 인천



2013 6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34 / 2013.6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다 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 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 Cover Story



6월 29일,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현장.  
인천의 힘찬 발차기가 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각복상을 포함 12개 종목으로,  
수천 명의 선수가 스포츠제전을 펼칩니다.  
이 즐거운 경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作 김기춘 010-5131-3146



06



18

## CONTENTS

04 소통과 화합

0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18 Enjoy Incheon 수인선 개통 1주년

24 포커스 하늘정원

28 인천 바다, 그 속살 고잔 갯벌

34 아름다운 사람 인천시립합창단 우효원 작곡가

36 Culture News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외

38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28



24



52

## 18 추억이 몽글몽글, 수인선 여행

햇살 좋고 바람 좋은 날, 교통카드 하나 달랑 들고 수인선  
에 오른다. 비행기도 기차도 아니지만, 수인선을 타고 떠  
나는 여행에는 가슴 설레는 추억과 낭만이 있다. 수인선  
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지 1년. 어제 지나 오늘에 이르러  
다시 내일로, 인천의 시간 속을 달린다.

## 28 물과 물, 그곳에서 만나 같은 숨 쉰다

갯벌은 바닷가의 별판이다. 반도를 내쳐 달려 온 산맥은  
서해바다에 다다르면서 그 발걸음을 멈춘다. 산은 수만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찌물레 담고 곰삭혀서 또 다른 생명  
의 땅 갯벌을 만들었다. 인천은 오랜 세월 그 너른 품, 갯  
벌에 안겼던 도시다.

40 시정뉴스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 더 이상은 힘들어! 외

44 의정뉴스 교육위원회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외

46 생활정보 6월 문화행사, 당신을 부른다 외

50 이달의 서평 도로와 함께한 인생여행 외

51 인천 사는 이야기 외할아버지와 손자 외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수봉공원

58 모닝 커피 한잔 노중선 인천서구환경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6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https://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https://twitter.com/yona1488)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https://twitter.com/bluelou7)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https://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양진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  
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 내 마음, 늘 인천 곁에

독자 이용석(52 · 서울 동대문구)



이용석님은 25년간 살아 온 인천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과 인천은 한번 전철을 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이라며, '인천을 떠나도 인천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25년을 함께 해 온 인천은 내게 있어 제2의 고향 같은 존재다.

**〈굿모닝인천은〉이 좋은 이유** 시장님의 철학과 인천시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다. 문화, 역사, 사회, 정보 등 어느 하나 놓칠 것이 없다. 독자참여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구나'하고 마음을 나누게 된다.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때론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이 얼마나 매력 넘치는 도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도시 이미지가 더 높아지길 바란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인천을 더 사랑하길 바란다. 나는 인천을 떠나도 인천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도 서울, 성남 등 타 시도처럼 트윗행정을 펼치면 어떨까요. 건의해 봅니다.

우리는 스마트인천(@smartincheon) 트위터 및 SNS를 활용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콜센터(@120 incheon) 트위터로 시민의 불편을 접수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구주민입니다. 매립지 종료와 관련 서울시에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전해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확신했으니, 이제 관련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자 대체매립지 마련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린이날 인천대공원에서 보었는데 호감가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대공원에 가봐서 아쉬웠지만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기구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인천대공원은 수목원, 습지원, 어린이동물원 등을 갖춰 동식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재미보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꾸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라주민입니다. 청라에 실제로 거주하셔서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생 현안에 직접 부딪쳐 해결해 주세요.

청라국제도시시는 2013년 3개 노선을 신설해 현재 총 16개 노선 14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검암역 등 일부방면 불편노선은 6월 중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굴곡노선은 직선화해 합리적인 노선을 운영하겠으며, 2013년 말 청라역 개통에 맞춰 청라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을 조정, 신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온 지 한 달된 시민입니다. 집 근처 원당사거리 뒤편에 밀접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깔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자제해주세요.

서구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공사는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파손된 일부 구간만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말씀 기억할게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엄청난 집중력, 두뇌 스포츠의 진수



### 당구

(금메달 10개, 남7, 여3)



당구는 유럽 귀족들의 사교 스포츠로 출발했고, 매너와 예의를 중시해 신사 스포츠로 널리 알려져 있다. 14~15세기 유럽에서 고안되어 19세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 당구가 들어온 것은 구한말 일본을 통해서다. 왕족들의 실내 스포츠로 전파되었고 1912년 순종이 창덕궁에 옥돌대 두 대를 설치하고 큐를 잡은 것이 시초다. 한국인 최초의 당구장은 1924년에 개업한 '무궁헌'이었다. 현재 당구는 한국인들에게 대중스포츠로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현재 선수만도 약 300만명, 전국 당구 동호인도 잠정적으로 1천만명으로 추정한다. 이번 대회에서 당구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쓰리쿠션과 포켓볼, 스누커(흰색 큐볼로 빨간색 공 15개와 색깔이 다른 공 6개를 배치한 뒤 포켓에 넣는 방식), 잉글리시 빌리어드(큐볼로 두 개의 목표 볼을 쳐 포켓에 집어 넣는 방식)으로 나뉜다. 금메달 1개가 걸려 있는 쓰리쿠션은 한국, 일본, 베트남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인천실내무도대회 홍보대사이자 당구스타 차유람이 출전해 금메달을 노린다.

6월 29일~7월 6일, 송도컨벤시아(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역)

## 태국 5천년 역사 지킨 '애국무술'



### 무에이

(금메달 9개, 남6, 여3)



무에이(무에타이)는 태국이 5천년 이상 외세의 지배를 단 한번도 받지 않게 지켜 준 애국무술이다. 탄생배경은 고대 전쟁에서 적을 죽이기 위한 살상기술에서 출발했다. 그런 이유로 타 무술과는 달리 어떠한 형식도 없으며 특별한 이름도 없다. 무에이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참전했던 태국의 용감한 군인들을 통해서였다. 무에이는 화려한 동작보다 실질적인 공격이 주를 이룬다. 무릎기술과 상단차기가 배점이 높고 공격 기술이 다양해 박진감을 더하는 스포츠다. 경기는 각 3분 3라운드로 각 라운드간 1분의 휴식이 주어지며 각 체급별 녹아웃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소 17세 이상 35세 이하 선수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체급당 1명의 선수만 참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대되는 선수로는 K1에서 활약 중인 임수정과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무에이 전공인 최승우, 윤덕재, 조규호 등이 출전, 금 획득에 나선다.

6월 30일~7월 2일, 도원실내체육관(지하철 1호선 도원역)

**개회식** '꿈꾸는 이를 비추는 빛'이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막이 오른다. 이달 29일 오후 6시 40분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시작한다. 개회식장은 3면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로 채우고, 재미있는 9개 무도종목의 경기영상을 관객들에게 미리 선보인다. 임권택 총감독은 영상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연출을 통해 개최도시 인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알린다. 또 인천시민이 직접 참여해 노래도 부르고 시도 낭송하며 하나로 뭉치는 축제로 치른다.

**공식 환영행사** 개회식 전날인 이달 28일 실내&무도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행사가 영종도에 있는 하얏트리젠시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립무용단의 경고춤, 이상봉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회원국 전통의상 패션쇼, 정동극장의 뮤지컬 공연 '미소(美笑)'가 만찬공연으로 올려진다. 미소는 춘향전을 춤, 국악, 풍물이 어우러져 펼쳐는 전통 뮤지컬이다.





## 인생과 닮은 바둑판 위 치열한 전투



### 바둑

(금메달 4개, 남2 · 여2)



옛날 우리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신선놀음은 바로 바둑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승려 도림(道林)이 백제의 개로왕과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한량들의 잡기로 취급받던 바둑이 오늘날 정신스포츠프로 자리매김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바둑은 흑돌과 백돌을 바둑판 위에 번갈아 두며 ‘집’을 많이 짓도록 경쟁하는 게임이다. 흑백이 서로 많은 집을 지으려다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고, 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발생한다. 그래서 바둑을 흔히 인생에 비유한다. 이번 무도대회 한국 출전선수로는 국내랭킹 상위인 나현(18 · 15위), 변상일(16 · 19위)이 자동출전하고, 여자부는 오정아, 김채영, 최정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수 엔트리 마감결과 11개국에서 76명의 선수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3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6월 30일~7월 5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성화 채화와 봉송** 희망의 불씨는 대회 개막일인 이달 29일 오전 10시 강화마니산에서 피어오른다. 이어 120명의 봉송 주자가 정서진→계산삼거리→부평역→장고개삼거리→부평구청→굴포천역 50.8km 43개 구간을 달리며 오후 7시 개최식장인 삼산월드체육관에 도착한다. 성화 봉송에는 올림픽금메달리스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참여하며,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피구에 술래잡기를 더한 격투기



### 실내카바디

(금메달 2개, 남1 · 여1)



카바디는 힌두어로 ‘숨을 참는다’는 뜻으로 고대 인도의 병법에 기원을 두고, 격투기와 술래잡기, 피구를 결합한 경기다.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생겨나 인도아대륙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성행하는 스포츠다. 자신을 방어하고 생존을 위해 공격기술을 고안하고 발달시켜 온 점이 특징이다. 한 팀에 7~9명(선수 5명, 후보 4명)의 선수가 뛰고,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15분에 하프타임 휴식시간 5분이 주어진다. 득점은 레이더(공격수)가 안티(수비측)를 터치(접촉)해서 자기 진영에 돌아오면 한 명당 1점씩(한 사람을 터치하면 1점, 두 명을 터치하면 2점)주어지며, 레이더가 잡혀 실패하면 안티에 1점이 주어진다. 남자부는 인도가 최강으로 이란, 파키스탄이 2위권을, 여자부도 인도, 이란이 정상을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부터 참가했고, 동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9일~7월 3일, 안산 올레체육관(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문화행사 코리아 판타지(Korea Fantasy)** 한국의 전통적인 부채춤, 장고춤, 동래학춤, 삼고무, 오고무 등과 ‘궁’(궁중무), 신라의 기상(장검무), ‘춘설’ 등의 한국 창작춤을 모듬 공연으로 만들어 한국무용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 국립무용단이 공연한다.  
일시 : 6월 30일(오후 7시 30분~9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1만원



## 실내에서 축구를 즐기다



### 풋살

(금메달 2개, 남1·여1)



풋살(Futsal)은 피파에서 공식 인정한 실내 축구의 한 형태다. 풋살이란 용어는 국제경기를 위해 만들어져 축구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풋볼(Futbol)과 실내를 뜻하는 프랑스어 살롱(Salon)을 합성해 만들었다. 각 팀은 11명이 아닌 5명(1명은 골키퍼)으로 구성, 선수교체는 7명까지 가능하다. 경기 중 교체 횟수는 무제한. 시간은 전·후반 각 20분이며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다. 각 팀은 전·후반 경기 중 각 1분간의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오프사이드는 없다. 가로 20m, 세로 40m의 농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진행하고, 축구공보다 약간 작은 4호볼을 사용한다. 축구와는 달리 태클이나 몸싸움이 금지돼 있어 발재간을 연마하는 데 좋다. 펠레, 지코, 베베토를 비롯한 수많은 브라질의 축구스타들이 풋살의 경기를 통해 기술을 연마했고, 전 세계적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이번 대회에선 남자의 경우 이란이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고, 여자는 일본이 강세다. 우리나라는 8강권을 목표로 한다. 408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6월 26일~7월 6일, 송도글로벌캠퍼스 체육관(6월 26일~7월 1일,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동부학생체육관(7월 3일~6일, 버스 532, 535, 538, 535-1, 536)

**문화행사 관현악 창작곡악**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연주를 통해 전통음악을 쉽게 듣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꾸었다. 창작곡악과 민요, 판소리 및 가요, 영화음악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유명 레퍼토리들로 꾸며진다.  
일시 : 7월 1일(오후 7시 30분~9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1만원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짜릿한 킥, 스트레스가 저 멀리



### 킥복싱

(금메달 9개, 남6·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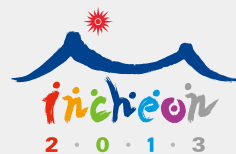


주먹이나 발, 팔꿈치, 무릎 등을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국 특유의 변형 권투. 1963년 일본에서 태국의 복서를 불러들여 경기를 치러 흥행하였는데, 선수가 다리기술을 많이 쓴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킥복싱은 남자 6개, 여자 3개 종목을 포함해 총 9개의 세부종목으로 구성됐고, 링 스포츠 풀 컨택(Full Contact)과 로우 킥(Low Kick), 매트 스포츠인 포인트 파이팅(Point Fighting)으로 운영한다. 매트 스포츠는 공격기술과 가격부위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사용하며, 링 스포츠는 동일한 1점을 부여한다. 채점은 컴퓨터 채점 방식으로 라운드마다 청·홍의 점수를 각각 계산하며, 각 라운드의 점수를 최종 라운드까지 합산해 총점이 높은 선수가 이긴다. 킥복싱은 단순히 복싱에 발 공격을 가미한 것이 아니라 등주먹, 리치핸드, 스피닝 등 공격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1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유현우와 지난해 아시아챔피언십 우승자 김준성, 김도연, 박혜영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3일~7월 6일, 도원체육관(지하철 1호선 도원역)

**문화행사 카르미나 부라나** '카르미나 부라나'는 보이렌 수도원의 노래라는 뜻으로 11~13세기 유랑승과 음유시인들이 부른 노래를 담은 시가집에서 음악 작곡가 '칼 오르프(Carl Orff)'가 25곡을 새롭게 작곡, 독일 현대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립·시립합창단, 인천시향이 함께 공연한다.  
일시 : 7월 2일(오후 7시 30분~9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1만원





## 댄싱 위드 더 아시아



### 댄스스포츠

(금메달 10개, 스탠더드 5 · 라틴 5)



스포츠적인 요소가 더해진 사교댄스로, 그 시작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 상류사회 모임에서 추던 볼룸댄스(Ballroom Dance)로 거슬러 올라간다. 댄스스포츠라는 용어는 1987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가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식명칭으로 사용했다. 댄스스포츠 예선전은 48커플까지 참여하고, 최대 12커플이 하나의 플로어에서 동시에 경기를 치른다. 심사위원의 포인트를 많이 받은 24커플이 준준결승에 진출한다. 준준결승은 24커플 중 12커플을 선발하며, 준결승은 결승 진출팀 6커플을 추린다. 결승은 6커플이 참여해 동시에 경기를 벌여서 순위가 높은 3개 커플이 금·은·동 메달을 획득한다. 수 엔트리 마감결과 17개국에서 108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한국은 전 종목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위권에 속하지만 아시아에선 최강 중국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개 메달을 목표로 하며, 라틴종목에서는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2관왕의 장세진, 이해인과 스탠더드 종목에서는 박성우, 조수민 선수가 주목받고 있다.

7월 4일~7월 5일, 삼산월드체육관(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문화행사 차이코프스키 발레** 공상과 현실의 혼돈 속에 휘청이던 차이코프스키의 청년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 보리스에이프만 (Boris Eifman)의 완성도 있는 연출로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에 투영된 아름다운 상상들을 발레라는 상징성 강한 장르로 그려냈다.  
일시 : 7월 5일(오후 7시 30분~9시 2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1만원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눈을 떼 수 없는 재미가 있다



### 25m쇼트코스 수영

(금메달 30개)



쇼트코스 수영은 25m 길이의 풀에서 펼쳐지는 경기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짧은 풀에서 박진감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가 높다. 세계수영연맹은 1988년부터 매년 정규대회를 개최해왔지만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쇼트코스 수영은 대체로 정상 코스에 비해 빠른 기록이 나와 턴당 평균 0초52의 기록단축 효과가 있다. 턴과 킥이 두 배로 많기 때문에 턴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종목'이다. 개인종목은 세부 종목별로 2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팀 종목(계영)은 1개의 팀이 출전한다. 국가별로는 후보선수를 포함해 40명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인도 등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우승이 점쳐지는 선수로는 쇼트코스 수영대회와 2012 두바이아시아선수권 접영 우승자인 최혜라와 장규철, 평영에서는 최규웅을 주목하고 있다.

6월 30일~7월 3일, 도원수영장(지하철 1호선 도원역)

**문화행사 수궁가** 독일 오페라 연출의 거장 아힘 프라이어(Achim Freyer)가 창극에 도전장을 냈다. 서사극의 창시자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수제자인 그가 연출, 무대 및 조명디자인을 맡아 창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설치미술 작품처럼 독특하고 절제된 무대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일시 : 7월 7일(오후 7시 30분~9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1만원



## 침묵 속 치열한 두뇌게임



### 체스

(금메달 4개)



체스무늬 판과 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서양장기라고도 한다. 고대 인도에서 발상한 차투랑가(Chaturanga)가 유럽에 전해졌으며, 그것이 변형되어 15세기 경 국제규칙이 확립됐다. 해마다 주니어 선수권대회, 2년마다 남녀 각 단체선수권대회(체스올림픽), 3년마다 남녀 각 개인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모든 경기가 스위스시스템 리그로 치러진다. 한 번 붙은 사람과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붙을 수 없고 한 번 부전승자는 두 번 부전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순위는 승점 순으로 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타이브레이크 규칙을 따른다. 중국이 독보적인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 160개 회원국 중 106위를 차지할 만큼 하위권이다. 광저우대회 개인단체 2관왕에 빛나는 중국의 허우이판과 베트남의 르쿠암림 선수 등이 정상권에서 주목 받는 선수들. 수 엔트리 마감결과 26개국에서 12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6월 30일~7월 6일, 연세대국제캠퍼스 2층(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문화행사**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세계의 민속악기-악기야! 안녕?'을 주제로 세계 민속악기의 기원을 알아보고,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만들어 본다. 하와이 민속악기 우쿨렐레와 아프리카 민속 타악기 켄베 등 다양한 세계의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일시 : 6월 29일(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관람료 : 무료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윌패 상패 통패, 스트라이크!



### 볼링

(금메달 6개)



진자운동의 원리를 응용해 볼을 굴려서 목표지점에 있는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 무거운 공의 스핀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목표물에 정확히 공을 굴러 넣는 동작과 스피드가 복합된 경기다. 각 게임은 한 쌍의 레인에서 펼치고 개인전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레인에서 한 프레임을 던진 후 다음 프레임은 옆 레인으로 옮긴다. 2명의 선수 중 우측 선수가 먼저 투구하며 이런 방식으로 1레인 당 5프레임을 완료해 경기를 마친다. 2인조는 국가별로 2개 팀이 참가할 수 있고 12개 레인에서 6게임을 한 블록으로 8강을 가리고 준준결승부터 최상위와 최하위가 맞붙는 방식의 녹아웃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4인조는 국가별 1개 팀이 참가해 12개 레인에서 여섯 번의 게임을 3게임 블록 2개로 나누어 진행한다. 국가별로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이 우승 후보로 점쳐진다. 한국은 광저우대회 때 12개 금메달 중 8개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수 엔트리 마감결과 21개국 13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6월 30일~7월 6일, 안양 호계볼링장(지하철 4호선 범계역)

**문화행사** 찾아가는 영화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번시(코미디언 최영준)의 생생한 해설과 가창, 만담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에 선사한다.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 준다.  
일시 : 7월 4일~5일(오후 8시~9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술 한판



### 크라쉬

(금메달 8개, 남5·여3)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스포츠인 크라쉬는 3천500여 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국기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들어왔다. '시합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크라쉬는, 기술로 상대를 메쳤을 때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게임 방식이 유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상대 선수의 하반신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라운드 기술이 허용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각 유형의 체급별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 체급 준결승전의 패자 2명에게 동메달을 수여한다. 경기는 남자는 4분, 여자는 3분으로 진행된다. 체급별로 1명의 선수만, 국가별로 최대 5체급(남자 3체급, 여자 2체급)만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주국인 우즈베키스탄이 독보적인 경기력을 과시하고, 이란, 카자흐스탄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따내며 5위 이상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 4일~7월 6일, 안산 올레체육관(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입장권 구입**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사이트(www.okticket.com)를 통해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 2차 예약판매 기간인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5% 할인 이 적용된다. 또 이달 26일부터는 각 경기장 현장판매소와 무인발권기로도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등은 입장권 가격의 50%가 할인된다. 문의 :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팀 458-2675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29~7.6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온라인 세상, 우리가 접수한다!



### e-스포츠

(금메달 6개)



e-스포츠(Electronic Sports)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통틀어 이른다. 초창기에는 게임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곱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등의 노력으로 게임문화로 정착했다. 경기는 전략시뮬레이션(스타크래프트 2)과 스포츠(피파), 격투(철권), 레이싱 장르(니드 포 스피드) 등 주로 일대일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단체전은 일인칭 슈팅게임 대표종목인 스펙폴스와 다중접속전략게임 대표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로 나뉘 열린다. 인터넷과 PC환경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는 e-스포츠로 공인된 종목이 24개나 있을 만큼 강세다. 각 국가별로 6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은 4개 종목 모두에서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지난 2009년 베트남 하노이대회에서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건 바 있다. 수 엔트리 마감결과 카자흐스탄, 타이페이 등 13개국 97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한국이 가장 많은 14명의 이름을 올렸다.

6월 29일~7월 2일, 삼산월드체육관(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폐회식** '우리의 빛이 모여 아시아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축제를 만들어 낸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80분 동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에서의 만남을 약속한다. 한국 전통 퍼포먼스와 K-POP이 어우러져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춤추게 하는 문화적 행사로 꾸며진다. 영상과 미술, 음악, 의상 등 제작진이 6개월 동안 준비한 드라마를 선보인다. 7월 6일 삼산월드체육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水仁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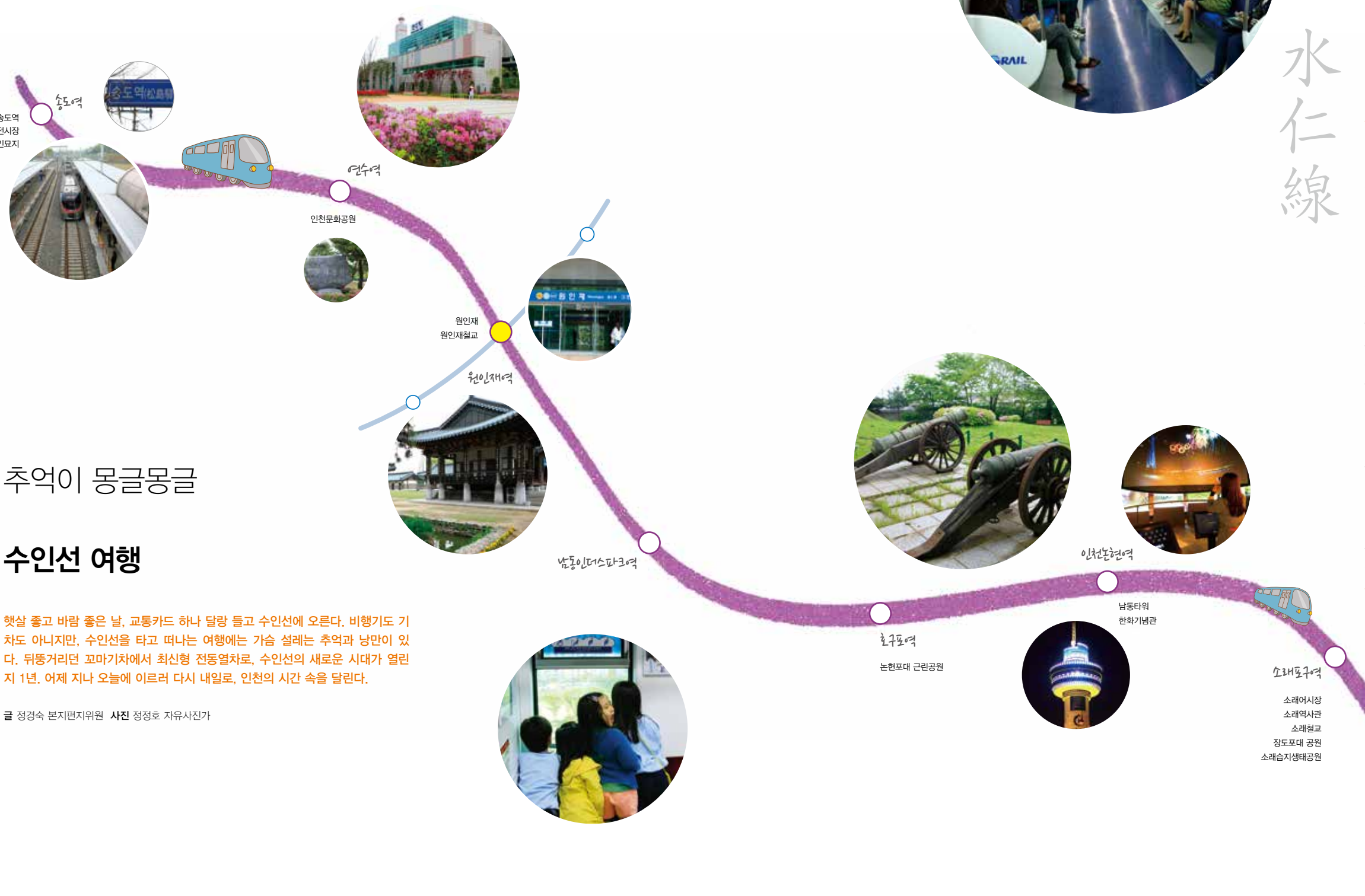
## 새 역사의 철로 위 달리는 수인선

칙칙폭폭 흔들흔들 덜컹덜컹... 철로 폭은 76.2cm로 일반 철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 위를 달리는 객차도 승객들의 숨결이 닿을 만큼 좁았다.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5년 착공해 반세기 이상 우리네 삶의 애환을 실어 나르다 199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송도에서 오이도 13.1km 구간을 우선 개통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았다. 덜컹덜컹 좁은 철도를 달리던 꼬마기차는, 이제 최신형 전동차가 되어 쪽 쪽 뻗은 선로 위를 씩씩 달린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총 52.8km로 이 가운데 전철 안산선 오이도에서 한대역 12.6km 구간은 이미 운행 중이고, 인천에서 송도 7.2km 구간은 오는 2015년에, 한대앞에서 수원역 19.9km 구간은 오는 2016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64분이 걸린다.

수인선을 타고 안산이나 과천 방면으로 가려면 오이도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고, 인천 방면으로 가려면 원인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면 된다. 수인선의 개통으로 송도에서 오이도까지 버스로 70분 가량 걸렸던 시간이 22분으로 줄어,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졌다.

문의 코레일 1544-7788



추억이 몽글몽글

## 수인선 여행

햇살 좋고 바람 좋은 날, 교통카드 하나 달랑 들고 수인선에 오른다. 비행기도 기차도 아니지만, 수인선을 타고 떠나는 여행에는 가슴 설레는 추억과 낭만이 있다. 뒤통거리던 꼬마기차에서 최신형 전동열차로, 수인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지 1년, 어제 지나 오늘에 이르러 다시 내일로, 인천의 시간 속을 달린다.

글 정경숙 본지편지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 송도역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역사를 시작한 송도역. 1992년 송도역에서 소래역 간 열차가 운행을 멈추면서 수인선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송도역은 희뿌연 먼지를 털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칙칙푹푹 흔들흔들 덜컹덜컹..., 그때 그 시절 역사의 파편을 하나들 그러모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

### 옛 송도역

스쳐 지나칠 뻔 했다. 낡은 돌계단 위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 그 옛날 사람들로 북적이던 수인선의 종착역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역이 문 닫고 민간기업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건물엔, 지금 먼지만 자욱이 쌓여 가고 있다. 하지만 시골 간이역의 고유의 정취와 외벽에 새겨진 '송도'라는 두 글자,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증기기관차용 녹슨 급수탑이 이곳이 역이었음을 가까스로 말하고 있다. 다행히 옛 송도역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 본다. **가는 길** 역 1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방향 송도역 삼거리 부근



### 송도역전시장

그 옛날 송도역 앞은, 소래 군자에서 건너 온 촌로들과 수인역 쪽에서 온 아낙들이 곡식과 생선을 펴고 흥정을 벌여늘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수인선이 폐선하면서 반짝시장의 풍경이 사라지고, 송도역전시장이 들어섰다. 지금은 단 30여 곳의 점포와 노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잇고 있다. 언젠가는 잘나가던 그때 그 시절처럼 환히 웃을 날이 오겠지, 나지막이 되뇌어본다. **가는 길** 옛 송도역에서 길 건너 대로변에 시장 입구가 있다.



### 인천외국인묘지

바람 소리만이 명징하다. 빌라가 뻥뻥이 들어선 송도역 인근 뒷산에는 개항 이후 인천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외국인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제물포에서 죽은 이름 없는 선원도, 약대인(藥大人)이라 칭송받던 의사 랜디스도, 이 안에서 죽음의 크기는 모두 같다. 묘지는 철문이 굳게 가로막고 있어 더 쓸쓸하다. '아직 시들지 않은 하얀 국화는 누가 놓고 갔을까...'.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이역만리 땅에서 생을 마친 이들을 가만히 떠올려 본다. **가는 길** 송도역 삼거리에서 청학사거리 방향으로 가다 비류대로 256번길로 진입, 동보아파트 앞



## 연수역 · 원인재역



수인선이 추억을 넘어 다시 세상을 가로지른다. 저기 차창 밖으로 펼쳐진 승기천, 두 눈 가득 마음 가득 푸르름을 채워본다. 연수역은 고층빌딩숲 한가운데 있지만 선로 변에 녹지가 잘 가꿔져 있어 마치 숲길을 달리는 듯하다. 주변에 상가와 편의시설, 공원 등도 잘 조성돼 있어 소박한 도심의 일상을 즐길 수 있다. 원인재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을 잇는 환승역. 곁에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원인재와 수인선 협궤열차가 달리던 철교가 시간을 거슬러 있다.

### 인천문화공원

도심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든 참 반갑다. 연수역 부근 인천문화공원. 도시 한가운데 초록으로 물든 숲과 산책로는 삶에 한줄기 여유를 비춘다. 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은 삶에 싱그러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는 9월 7일까지 매일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공연 '토요문화마당'이 열린다. **가는 길** 연수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남짓, 원인재역에서는 약 10분 거리.

### 원인재

현대적 풍경 속 더디고 정묵한 옛 풍경이 오롯하다. 원인재는 인천 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사당으로 인천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는 연못 하나에도 고택 특유의 멋과 여유가 서려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팔작지붕을 인 원인재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이 흐른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돈인재는 위풍당당한 풍채가 돋보인다.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마루를 내려 간결하면서도 시원한 멋이 흐른다. **가는 길** 역 원인재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바로, **문의** 821-1230

### 원인재철교

원인재역 근처에는 소래철교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협궤철교가 있다. 원인재역에서 승기천을 가로질러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던 수인선의 철교 구간이다. 철도는 철거됐지만 교각과 철재상판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저기 꼬마기차가 최신형 전동차가 되어 쪽쪽 뺀은 선로 위를 달린다.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는 순간이다. **가는 길** 원인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육교가 보인다. 그 위에서 어제와 오늘의 수인선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호구포역 · 인천논현역

인천경제의 심장부인 남동공단이 버티고 있는 남동인더스파크역을 지나, 호구포역과 논현역에 이른다. 차창 밖으로 잘 가꿔진 아파트단지과 그 사이 보이는 오봉산과 공원을 내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논현역은 논현·한화지구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변화가다. 레스토랑과 상점이 즐비해 다양한 쇼핑과 외식의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가면 남동타워와 한화기념관(한화화학박물관) 등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공간에 닿을 수 있다.



## 논현포대 근린공원

호구포역 주변은 공원이 잘 가꿔져 있다. 산 등성이 산책로를 따라 숲이 짙게 드리워져 여윌롭게 산책하기 좋고, X게임장과 농구장 등이 있어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다. 아치형 다리를 건너면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간다. 논현포대(호구포대)는 조선 후기인 고종16년 1879년에 축조한 것으로, 포좌와 당시 쓰던 청동화포를 모형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가는 길** 호구포역에서 남동인더스파크역 방향으로 5분 남짓 거리

## 남동타워

남동구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뷰포인트다. 122m 전망대에 오르면 논현동 일대는 물론이고 멀리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낮 풍경도 좋지만 이왕이면 해질 무렵 올라가 어두워질 때까지 머무르길 권한다. 찬란한 저녁노을이 내리고 이마저 희미해지면 별이 박힌 듯 야경이 반짝인다. 타워에는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과 남동구 기업홍보관 등이 있다. **가는 길** 논현역 2번 출구에서 청릉대로 방향, 토지주택공사 인천에너지사업단 내 **문의** 429-0986

## 한화기념관(한화화학박물관)

인천이 근대화학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인천에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화학전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55년 설립해 국내 화학산업을 개척한 한화 인천공장이 2006년 충북 보은으로 이전하고,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세워졌다. 화학의 역사를 풀어놓은 전시관과 당시 제조시설과 제조과정을 담은 제조공실, 직원들의 안전을 기도하던 '성 디도 채플' 등이 있다. 특히 인천공장의 마지막 공장장이었던 민병관 관장으로부터 근대화학의 역사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어 더 뜻깊다. **가는 길** 남동타워 정문 앞에서 길 건너 바로 **문의** 431-5142



## 소래어시장

포구는 살아 있다. 작은 포구가 어찌 감당할까. 싱을 만큼 뻥뻥하게 자리 잡은 어물 전에선 생선들이 싱싱하게 팔딱거린다. 짠 내 가득한 시장에는 물건 가득 실은 손수레가 바빠 오가고 사람들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소래에는 전부터 있던 재래어시장과 최근에 생긴 건물형 종합어시장이 있으며, 사시사철 싱싱한 회와 젓갈을 맛볼 수 있다. **가는 길**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가면 소래포구종합어시장. 그 옆 소래역사관을 지나면 바로 재래어시장. **문의** 719-1522

## 소래철교

1995년을 마지막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옛 수인선 철교가 아직도 바다를 가로지른다. 그 옛날 바닷사람과 염전 인부를 실어 나르던 120미터의 철교 위를 지금은 연인과 가족이 손잡고 거닌다. 흔들흔들 아슬아슬, 오래된 철교가 오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는 길** 소래어시장 조입 부근

## 소래역사관

소래의 새로운 명소. 지상 2층 규모에 전시장과 영상실, 학예실 등을 갖추었다. 협궤 열차와 옛 포구, 염전 등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잡힐 듯 말 듯 사라져가는 소래의 정취를 붙잡고 있다. 인천항에서 수원까지 기차로 50원에 달리던 시절 대합실과 소래갯벌, 옛 수인선을 영상과 실사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는 길**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지나 바로 **문의** 453-5630

##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가 황량해서 실망스럽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풍경이 펼쳐진다. 눈앞에 보이는 건 염전, 갈대, 갯벌... 오직 자연뿐.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하나뿐인 해양생태공원으로 폐염전 일대에 해양생태전시관과 전망대, 체험관 등을 조성했다. 저기, 아이들이 회색 용단 위 작은 발자국을 내며 까르르 웃음을 터트린다. 갈대숲과 갯벌을 따라 난 기나긴 흙길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 된다. **가는 길** 소래어시장에서 공원 남문까지 도보로 약 10분 **문의** 435-7076



# 소래포구역

수인선 노선의 한가운데이자 인천 노선의 마지막인 소래포구역. 햇살이 비추어 이드르르한 갯벌과 그 사이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배... 고른 한낮 소래포구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소박하고 목가적이다. 하지만 역에서 빠져나가면 살아있는 포구가 살갓에 닿듯 전해진다. 소래에는 갯 잡아 올린 생명들이 파닥파닥 살아 숨 쉬고 짠 내 가득한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재래어항 명소답게 구석구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머무는 시간을 넉넉히 잡고 여유롭게 돌아보자.





# 하늘과 맞닿은 정원에

## 초록세상이 들어왔네

글 이용남 본지편지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송도국제도시 빌딩 옥상이 초록빛 세상이 가득한 ‘하늘정원’으로 바뀌고 있다. 빌딩 속 하늘정원은 직장인들의 쉼터이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공간이다. 탁 트인 전경, 시원한 하늘바람, 여기에 나무와 꽃, 풀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지친 심신의 기운을 맑게 돌우는 새로운 파라다이스이자 오아시스다.

### 송도 포스코글로벌 R&D센터

유리와 철로 조합한 최첨단 건물인 송도국제도시 포스코글로벌 R&D센터. 초현대식 건물에 내부도 유명 작가들의 사진과 미술작품들이 걸려있어 미술관 못지않은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풍긴다. 건물 내부벽은 철의 회사 포스코답게 철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표현한 벽화가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건물전체가 갤러리 느낌을 준다.

이 회사의 4층 옥상엔 하늘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옥상규모는 100m×50m로 나무테크가 깔려있고 잔디와 맥문동, 벤치가 배치되어 있다. 점심시간이나 업무로 잠시의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이 올라와 시원한 송도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힌다. 주변이 막힌 곳 없이 탁 트여 선선한 바닷바람은 물론 먼 곳의 빌딩들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다.

포스코글로벌 R&D센터 옥상은 층고는 높지 않지만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건물외관 때문에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곳 옥상은 드라마 ‘아이두 아이두’에서 주인공 김선아, 이장우가 사랑을 키우던 장소였다. 또 송중기가 주연한 착한남자, 런닝맨 박지성편을 촬영하기도 했다.

#### 플러스이야기



송도 포스코글로벌 R&D센터 사무실엔 작은 숲이 있다. 사무실 내 초록공간이자 쉼터다. 사무실 내에 조성된 숲은 살아있는 나무, 꽃, 풀을 심었고, 작은 웅덩이도 만들어 진짜 숲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직원들은 숲 속 벤치에 앉아 책, 잡지를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바빠 돌아가는 업무를 잠시 놓고 숨을 고른다.





### 송도글로벌캠퍼스

송도글로벌캠퍼스 운영지원센터 옥상에 가면 하늘로 비상하듯 디자인된 멋진 하늘정원을 만날 수 있다. 옥상은 나선형의 건물모양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위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벤치들이 있고, 중간 중간 넓직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송도국제도시를 보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근심을 훌훌 털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닥은 인조잔디로 깔려 있지만 초록이 주는 안정감, 상쾌함으로 더욱 싱그럽다. 운영지원센터 6층은 전체가 하늘정원이다. 옥상 뒷쪽은 살아있는 잔디와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옥상 너머로는 송도11공구 매립지 현장이 보인다.

### 포스코 센트럴파크 1단지

송도국제도시 포스코 센트럴파크 1단지 3층 옥상에 마련된 하늘정원은 예쁜 꽃들과 다양한 식물들이 사는 작은 우주다. 이곳 하늘정원은 가히 꽃과 나무들로 가득찬 숲의 세상이다. 동화 속 비밀의 정원에 온 듯 소나무 진달래 철쭉들이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고 엄부채, 꽃범의 꼬리, 금잔디 등의 초화류가 싱그러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정원은 암석원, 허브원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 정원 중간은 단풍나무가 우거져 시원하게 그늘을 제공한다.

전망테라스에서는 잠시나마 앉아서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정원 너머로는 송도국제도시의 명물인 포스코 빌딩, 트라이볼, I-Tower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6월에는 둥근 아치를 타고 장미꽃이 만발해 하늘정원의 색깔이 더욱 화려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 E&C타워

포스코건설이 입주해 있는 포스코E&C타워 건물 6층에도 새와 나비들이 드나드는 하늘정원이 예쁘게 구성되어 있다.

36, 37층 쌍둥이 건물을 잇는 6층 브리지에 마련된 이곳은 키가 작은 소나무, 단풍나무, 꽃나무, 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화원을 이루고 있다. 바닥은 나무데크로 깔았고, 탁자도 마련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주변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 하늘정원을 거닐다 보면 굳이 공원을 즐기러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곳에 초록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 가까운 곳에 철근과 시멘트가 아닌 눈부신 생명력을 자랑하는 새싹들의 상쾌함, 싱그러움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어 신록예찬이 절로 나온다.

### I-Tower 29층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가 입주하는 I-Tower는 친환경 녹색건물을 지향한다. GCF가 들어오는 빌딩인 만큼 세계에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천하는 인천을 당당하게 보여줄 랜드마크가 된다. I-Tower는 총 33층 높이지만 하늘정원은 29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식물은 심한 바람에 잘 견디고 소금기에도 강하다. 주로 섬초, 후룩스, 풀꽃 등이다. 정원에는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잘 배출하는 제주도 화산석인 ‘송이’를 깔았다. I-Tower 하늘정원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요즘같이 해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센트럴파크 호수공원과 함께 어우러진 낙조를 감상하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I-Tower에서 보는 낙조는 최고다. 이곳도 주변의 빼어난 풍경 때문에 방송촬영 장소로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 유준상 주연의 ‘출생의 비밀’, 리키 김이 촬영한 골프공 광고도 I-Tower가 배경이었다.

#### 플러스이야기

I-Tower의 친환경적 모습은 6, 12, 17, 23층에 조성된 실내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자민, 천양금, 극락화, 고무나무 등 공기정화도 되면서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다. 시멘트 빌딩에서 예쁜 꽃과 윤기나는 초록의 잎을 보면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 한편 GCF는 올해 말까지 선발대 형식으로 30명의 직원이 입주한다. GCF 직원수는 2015년 300명, 2017~2018년 5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과 물,  
그곳에서 만나

같은 숨을 쉰다

갯벌은 바닷가의 벌판이다. 반도를 내쳐 달려온 산맥은 서해 바다에 다다르면서 그 발걸음을 멈춘다. 산은 수만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찌꺼기에 담고 곰삭혀서 또 다른 생명의 땅 갯벌을 만들었다. 인천은 오랜 세월 그 너른 품, 갯벌에 안겼던 도시다. 교과서에서 배운 적 있는 들고님이 뚜렷했던 리아스식 해안에 오랫동안 기대어 살았다. 인천의 바다와 땅이 갯벌에서 만나 들숨과 날숨을 서로 나누며 공존해 왔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동막, 능허리, 척천, 박짓뿔, 고잔 .... 송도국제도시가 건설된 너른 갯벌을 논밭 삼아 먹고 살았던 마을들이다. 이제는 지도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었다. 그들은 동막·척천·고잔어촌계 등을 조직해 마을별로 어로생활을 했다. 동죽, 가무락, 맛,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건강망 그물을 설치해 낙지, 숭어, 꽃게, 장대, 망둥어 등을 잡았다.

이제 1%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에서 섬을 제외한 해안선 123.9km 중 99%인 122.8km가 매립되었다. 구불구불했던 해안선은 직선으로 짝 퍼졌다. 남은 그 1%의 인천 갯벌이 바로 고잔 갯벌이다.

“오늘 일 나가시나요?”, “시방 안개가 너무 짙어. 위험해.”

“날씨 좋은데, 오늘은 나가시겠죠?”, “날 좋으면 뭐해. 오늘은 물때가 아녀. 못 가.”

바다는 쉽사리 그 품을 열어주지 않았다. 춘삼월이 지나 물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피었는데도 바다는 여전히 영하의 날씨 속에 꽁꽁 얼어 있었다. 비, 안개, 바람, 추위, 물때 게다가 어촌계 봄 관광까지 갯벌 취재를 막아섰다.

처음 연락이 닿은 지 40일 만에 그 갯벌을 따라 나섰다. 오늘은 12물, 내일모레는 조금이다. 오늘과 내일 아니면 바다일은 또 며칠 째이다. 아침 10시까지 장화와 물을 준비해서 ‘모’처로 오라는 전

화가 왔다. 모치를 찾아 나섰다. 남동공단 건너편, 한창 매립 공사 중인 도로변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어렵게 발견했다. 이곳이 그들의 베이스캠프다.

오늘 갯벌에 나가는 사람은 일곱 명. 모두 여자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들이다. 이미 함께 모여 캠프에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복장을 다 갖춘 상태다.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얻은 후 그들을 따라 나섰다. 갯벌은 멀지 않다. 석축길을 몇 걸음 떼면 바로 회색빛 갯벌이다.

일곱 명은 갯벌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흠어졌다. 자기 구역이 있는 걸까? 아니다. 발길 닿은 대로 향하지만 무엇보다 그날 자신들의 ‘감’에 따라 흠어진다. 체력이 되는 사람은 물길 끝을 따라 1km 밖으로도 나간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들 10보에 기자는 고작 3, 4보만 전진할 수 있을 뿐이다. ‘곰찍하게’ 찰진 그 끈적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온 신경과 뼈를 힘껏 늘어 잡아당긴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못간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다. 79세 오월남 할머니다. 바다라곤 구경도 못했을 법한 경북 김천 출신의 이 할머니는 어찌하다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

“상주 영감 만나서 농사짓다가 먹을 게 없어 45년 전에 저기 호구포로 이사 왔어. 몇 년 농사짓다가 500원 내고 어촌계원 됐지. 당시 방 월세가 400원이었던 시절이야.”

아파트 두 채 사서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 철 따라 제주도며 설악산이며 좋다는 데는 안가 본 곳이 없다는 등 설 새 없이 꼬챙이질을 하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신다. 갯벌에 들어가려면 흔히 22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 장화, 머리 수건, 모자, 물, 간식, 꼬챙이, 옷게, 함지박, 구럭, 고무줄, 밧줄, 함지박…. 여기에 오 할머니는 남들보다 장비가 하나 더 있다. 반쯤 굵은 등에 쇠파이프를 하나 끼어놓았다. 몸의 균형을 잡는 지팡이다.

“힘들지 않으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 있으면 아파. 여기 나오면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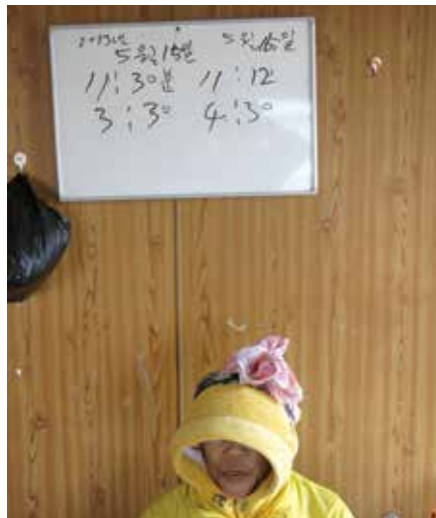
고잔어촌계는 현재 37명의 회원이 있다. 그건 명부상일 뿐 실제로 갯일을 하는 사람은 10여 명 정도다. 다른 일을 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뺄에 들어 갈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최고령 회원은 84세. 가끔 장비를 갖추고 나타나는, 아직 엄연한 현역이다.



‘고잔’은 곳(串)의 안쪽 마을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땅이 바다로 비쪽 튀어나온 땅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갈매, 고얏말, 당구지, 듄배이, 돌우물 등 토박한 이름들이 있었던 고잔 마을은 너른 갯벌을 품고 있었다. 고잔 사람들은 땅에서 얻는 것보다 바다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

갯일은 주로 여자들이 했다. 엄마 바지 끈을 잡고나와 장난삼아 조개를 캐던 작은 손은 이제 주름 손이 되었고,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꼬챙이를 이어 받은 며느리는 아직도 그 꼬챙이로 갯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잔의 여인들은 대를 이어 숙명처럼 바다로 나갔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화약공장에 다녔다. 바로 산 너머 한 국화약에 다니며 봉급생활을 했다. 벌이는 여





우리는 고갯별자매. 좌로부터 이정숙(63), 박창순(66), 김명자(68), 이춘자(74), 김임순(74), 김매자(72), 오월남(79)



자들이 훨씬 많았다. 한창 때는 한번 나가면 가 무락(모시조개)을 80kg씩 캐서 돌아왔다. 쌀 한가마니씩 이고 나온 꼴이었다.

1985년 남동공단이 조성될 때 갯벌이 매립 되었다. 삶의 터전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해 끝인 줄 알았는데 1994년 송도신도시 개발을 위해 다시 남은 뺨이 또 메워졌다. 고갯별은 마치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그렇게 좁아졌다. 마을사람들은 이른바 ‘조개딱지’ 하나씩 받아두고 바다를 떠났다. 몇 년 후 그들이 내준 갯벌 위에 송도국제도시 ‘갯벌센터’라는 고층건물이 세워졌다. 송도앞바다에서 ‘진주를 얻겠다’는 꿈으로 영문이름을 ‘Get pearl Center’로 지었다.

육지와 떨어진 갯별은 고요하다. ‘딸그락...’ 함지에 조개 떨어지는 소리도 크게 들린다. 이 소리를 백번은 들어야 오늘 하루 벌이를 할 수 있다. 조개 쌓인 함지 무게가 제법 나간다. 10kg는 족히 된다. 이제는 뺨을 파헤치는 힘에다 함지를 끄는 힘까지 써야한다.

갯골 너머 박씨 할머니 함지에도 조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 할멈은 얼마나 켜누?’. 잠시 허리 펴고 주위를 돌아본다. 마치 드라이 아이스를 피운 것처럼 물안개가 밀려온다. 멀리 함지를 끄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마치 탁발하는 노승처럼 보인다. 그렇게 그들은 갯벌 위에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며 고행하듯 걷는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오늘의 것 일뿐. 갯벌에서는 어제가 없다. 밀려오는 물은 모든 흔적을 지워 버린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고 들어온다. 뒤에 있던 물이 순식간에 앞으로 와 길을 끊기도 한다. 갯별은 언



뜻 보기에 평평한 것 같지만 굴곡이 아주 심하다. 한 길 넘는 갯골도 곳곳에 숨어있다.

오후 3시. 아침에 낀 안개는 끝내 걷히지 않았다. 해무 속으로 사라졌던 할머니들이 누가 소리쳐 독려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되자 하나 둘씩 모습을 보였다. 멀리 갯벌타워는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연 진주와 조개, 어느 것이 진정 값진 것일까. 역사는 분명 평가할 것이다.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던 한 쌍의 새가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러 갯벌로 나왔다. 저어새다. 길 건너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둥지를 튼 새들이다. 매립된 갯벌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2007년경에 다시 돌아온 철새다. 아마 자신의 할아버지 새들에게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밥상’을 전해 듣고 다시 찾아온 후손 새들 일 것이다.

베이스캠프 앞에는 수산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캐 온 조개를 저울에 재고 바로 현금을 지불한다. 1kg에 4천원. 할머니들 손에 대략 3, 4만원씩 쥐어진다. 하루의 삶 무게가 그렇게 또 저울에 달린다. 할머니들은 얼마나 더 많은 날을 갯벌에 발자국을 남기며 인생의 눈금을 바라볼까. 해가 뉘엿 지자 저어새도, 할머니도 갯벌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한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소녀 같이 커다란 눈망울, 소년처럼 짧은 머리, 기다랗고 늘씬한 몸매, 부드럽지만 또박또박한 말투…. 초록빛 나무 사이로 초여름이 반짝 바람이 솔솔 불던, 5월의 어느 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작곡가 우효원을 만났다.

그는 충만한 예술적 감성으로 화성과 음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작곡가다. 1996년 레이디 싱어즈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전임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메나리’와 ‘8소성’ 등 인천시립합창단과 세계 유명합창단들을 통해 초연된 그의 많은 곡들이 세계 각국에서 연주되고 있다.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ACDA), 프랑스합창마켓(Polyfolia) 등에서 크게 호평 받았으며, 2009년 세계합창총연합회(IFCM)의 저널 이스턴 라이트(Eastern Lights)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녀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음악회 ‘오! 인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양코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정명 600년과 개항 130년을 맞은 인천의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오랜 생각 끝에 답을 찾고부터는 작업이 수월했지요. 개인적으로는 내 음악적 터전인 인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오! 인천’은 영상, 해설, 합창, 반주가 어우러진 40분간의 대곡으로 합창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 작품은 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시민연합 합창단 600명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길고 긴 시간 ‘인천’이라는 이름을 지켜 온 인천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무대. 이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전임 작곡가 우효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우리 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음악적 신념. 스승 윤학원 선생과 함께 ‘한국적인, 세계적인, 현대적인’ 음악을 모토로 십년 넘게 달려왔고,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09년 ACDA 컨벤션에 참가했을 때는 첫 곡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는 ACDA 5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인천시립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서양음악에 우리의 숨결을 불어넣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야 세계가 인정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메나리’는 스스로도 ‘세계에서 과연 통할까’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곡입니다.” 펜과 악보만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말이다. 이제 마흔, 작곡가 우효원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인천의 정신이 담긴 한국적인 음악이 세계인의 가슴에 어떻게 파고들지 궁금하다.



### 커피콘서트Ⅳ 〈뮤지컬 메노포즈 갈라콘서트〉

여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폐경’이라는 소재를 특유의 재미와 페이스스로 엮어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메노포즈〉는 40~50대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작품이다. 6월의 커피콘서트에서는 뮤지컬 〈메노포즈〉의 출연배우 이윤표, 홍지민, 진아라가 출연해 뮤지컬 ‘메노포즈’에 관한 소개와 에피소드를 뮤지컬 넘버와 함께 나눈다.

일시 : 19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00



### 인천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파우스트〉

독일문학의 거장 괴테가 60여 년간 집필해 완성한 명작 〈파우스트〉가 인천시립극단에 의해 재창조된다. 노학자 파우스트 박사 역은 선 굵은 연기를 펼치는 중견배우 차광영이 맡고, 사랑의 쾌락을 통해 한 여인을 파멸로 이끄는 젊은 파우스트 역은 탄탄한 발성과 호흡으로 사랑받는 배우 김태훈이 연기한다. 신과 악마, 선과 악, 비극과 구원의 대비 속에서 한 인간의 생애를 깊이 있게 그려낸 장엄한 드라마를 통해 고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일시 : 5월 24일(금)~6월 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학생(청소년)1만5천원, 성인 2만원

문의 : 인천시립극단 420-2790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8회 정기연주회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Ⅲ〉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시작한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가 열린다. 파리음악원 출신의 주목받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브루노 만토바니의 지휘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제1막 중 전주곡과 만토바니의 타임 스트레치, 드비쉬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앙드레 나바라 국제 첼로 콩쿠르 최연소 1위에 빛나는 첼리스트 문태국과 랄로의 첼로협주곡 d단조를 협연한다.

일시 : 2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00



### 어린이명작무대 〈내 친구 플라스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엄선한 어린이 명작무대의 첫 번째 〈내 친구 플라스틱〉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연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의 물건들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어린이전문극단 사다리의 대표작인 레퍼토리. 4개의 독특한 스토리를 담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환경체험무대다. 배우들의 숨결과 손길이 닿으면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일시 : 6월 28일(금)~30일(일)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7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문화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hibition	5월 31일~6월 11일	엄마 어렸을 적엔 - 인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5월 31일~6월 6일	제2회 박수미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21회 남구미술협회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0회 바젤아카데미회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6월 7일~6월 13일	권현숙 제2회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모임새빛 제29회 정기회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여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창립 31주년 기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6월 7일~6월 16일	인천한국화 오늘과 내일(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가운갤러리)
	6월 14일~6월 20일	2014 인천A/G성공기원 한-중 국제미술교류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19회 예흔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6월 15일~8월 25일	오브제 체험전시 '가루야'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6월 18일~6월 29일 유니세프 사진전(사구문화회관 갤러리)
	6월 20일~6월 22일	노종선 명인전(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 6월 20일~6월 28일 꿈꾸는 기린(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가운갤러리)
	6월 20일~6월 29일	서양화가 박영동 명인전(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소), 6월 22일~6월 26일 제3회청소년환경경지아이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달의展	6월 28일~7월 4일	박헌국 개인전(실크비단 염색그림)(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CALENDAR 06 PERFORMANCE						
			안톤 체홉 (영글 바나)		유지철(우무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	3	4	5	6	7	8
인천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파우스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연희집단 the광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문화재과 032-875-4644		제13회 팝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 전석 1만원 ☎인천음악협회 032-873-7772		닌자고 버블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전석 1만5천원 ☎로그소 010-6508-7555	황.금.토.끼 (잠시 프로젝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유지철(사운드 오브 뮤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황.금.토.끼 (라베스타의 GO! GO! Music Festiv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3시, 7시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9	10	11	12	13	14	15
유지철(사운드 오브 뮤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전석 2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인천국악집단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문화재과 032-875-464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유지철 (편식쟁이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김도파세상 010-2898-001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유지철 (편식쟁이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김도파세상 010-2898-001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유지철 (편식쟁이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40분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김도파세상 010-2898-001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유지철 (편식쟁이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40분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김도파세상 010-2898-001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제18회 인천여성가족재단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인천여성가족재단 032-511-3141 황.금.토.끼 (서해바다 꿈 이야기) (인천시립무용단의 릴레이 데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3시, 7시 일반2만원, 학생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청소년뮤지컬 '레이제라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을 오후 2시, 5시 /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강동석과 화물첼보케스트라의 (사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1만원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릴레이 데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3시, 7시 일반2만원, 학생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청소년뮤지컬 '레이제라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을 오후 2시, 5시 /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16	17	18	19	20	21	22
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이명희판소리전수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문화재과 032-875-4644 안톤 체홉 (영글 바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일반2만원, 학생1만원 ☎극단 MR레퍼토리 032-505-5995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영아티스트 피아노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김해경 010-5157-3070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커피콘서트Ⅳ 유지철 (메노포즈 갈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제21회 새얼극단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새얼문화재단 032-885-3611 자유·평화·사랑 Soprano 김미영 독창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1만원 ☎평뮤21 문화교류재단 010-8909-9181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인천YMCA 032-431-8164 클루트와 함께 떠나는 유럽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인천클루트피아어 032-888-0808 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의 낭독공연) -그곳에 가면 행복이 흐른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아이언이연학교 발표공연 (어린이왕자)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무료 ☎032-500-2000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YMCA 032-431-8164 클루트와 함께 떠나는 유럽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인천클루트피아어 032-888-0808 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의 낭독공연) -그곳에 가면 행복이 흐른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아이언이연학교 발표공연 (어린이왕자)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무료 ☎032-500-2000 명작 가족 뮤지컬 (노틀담의 곰주) 사구문화회관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032-580-1155
23	24	25	26	27	28	29
제13회인천국제재전 전국악경연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9시 / 초대 ☎한국국악협회인천지회 032-875-4644 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판소리명창 박계항과 인천시 판소리교범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조경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문화재과 032-875-4644	제63주년 6.25전쟁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사회복지봉사과 032-440-2972 울 트롬본 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3천원 ☎032-505-5995 제8회 동학 (열린 무대) 남동문화예술관 스튜디오 제비 오후 8시 / 무료 ☎032-453-5710	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010-3794-4007 뮤지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2만5천원 ☎032-500-2000	뮤지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전석 1만5천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보고 듣고 즐기GO!)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뮤지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전석 1만5천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보고 듣고 즐기GO!)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어린이명작무대(내친구 플라스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한국가곡과 우리의 민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어린이명작무대(내친구 플라스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한국가곡과 우리의 민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30						
2013 제4회 인천시립무대 아시아경이대회 문화행사 (국립무용단 Korea Fantasy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1만원 ☎1588-2341	어린이명작무대(내친구 플라스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회원전용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한국국악협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문화재과 032-875-4644	뮤지드라마 (당신만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5천원 ☎032-500-2000			



나, 풀장에서

민물로 수영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1

몇 발자국만 떼면 바닷가였던 인천에서 풀장은 그리 흔한 시설이 아니었다. 1972년 6월 22일 ‘울목풀장’의 개장은 시민들에게 대단한 뉴스거리였다(사진1). 염전이나 송도유원지에서 짬물로 먹을 감던 아이들은 여름방학 중에 울목풀장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렵사리 풀장에 가면 입장료 생각에 온몸이 통통 불 정도로 물 속에서 놀았다. 이곳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수영을 즐겼는데 당시 만해도 도심 한가운데 노천풀장에서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수영복 입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울목풀장은 옛 시립도서관(현 울목도서관) 뒤편 현재의 어린이공원 자리에 있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인가가 거의 없던 이 언덕배기에 일본인들이 9천 여㎡의 공동묘지를 조성했다. 일설에 의하면 묘지 상당수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목숨을 잃은 일본군이었다고 한다. 1944년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사자(死者)의 땅’으로 인식돼 한동안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남아있었다.

빠가 나뒹굴던 산꼭대기 땅이 ‘풀장’으로,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면서 인천의 명소가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하수를 퍼 올려 쓰던 이 풀장에 시체 썩은 물이 흘러든다는 괴담이 돌곤 했다. 아마 풀장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퍼뜨린 소문일 테지만 아무튼 입술이 파래지도록 물이 차가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 풀장은 1996년 폐쇄되었고 그 이듬해 다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공사를 하던 중 땅 속에서 귀와 목이 잘린 문인석 6점이 거꾸로 매장된 것을 발굴했다. 일제가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저지른 행위였던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그중 3개의 문인석이 현재 울목공원 맨 위쪽에 전시되어 있다.

1965년 윤갑로 인천시장은 ‘인천개항일’ 1883년 1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했다. 문제는 인천이 개항한 공식적인 날은 시민들이 다같이 하루를 즐기기에 날씨가 너무 추운 데다 연초이기 때문에 모두들 바쁜 날이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참고 한 것이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였다. 그 책에 의하면 인천항의 실질적인 개항은 1883년 6월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를 적용해 ‘6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게 된다.

인천시민의 날은 지역 상공계의 제안에 따라



2



3



5



4

- 1 울목풀장 개장식 모습 (1972년). 높은 지대에 만들어져 멀리 전도관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았다.
- 2 제물포제 퍼레이드 장면. 고적대, 밴드부 등이 흥을 돋웠다(1970년).
- 3 인천의 주요 기업들이 차량을 다양하게 차장해서 행진했다(1970년).
- 4 지금은 사라진 청라도를 인천 관료들이 낙도위문 방문했다(1974년).
- 5 청라도 주민들이 모인 청영초교 청라분교 교정의 모습(1974년).

1968년 제4회 때부터 항도제(港都祭)를 겸해서 치르다가 이듬해부터 두 행사를 통합해 ‘제물포제’라 개칭했다. 사진 2는 1970년 6월1일 제 6회 제물포제 행사 중 시내 퍼레이드 장면이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이런 행사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이였다. 퍼레이드 행렬이 답동성당 앞길을 지날 때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톨릭회관이 들어서기 전의 언덕 공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사진 2는 퍼레이드 행렬이 공설운동장 트랙을 행진하는 모습이다. 지역의 한 업체가 기중기차, 일명 코끼리차를 이용해 퍼레이드차로 변신했다. 그 코끼리의 코에는 ‘김일성’이 처량하게 매달려있다.

청라도는 사라진 섬이다. 인천항에서 10km 채 못되는 거리에 해안선 길이는 통틀어 5km 밖에 되지 않는 손바닥만한 섬이었다. 이 섬은 70년대 연탄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매립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1986년 동아매립지 조성사업에 포함돼 깡그리 뭉개져 없어졌다. 이때 청라도와 생사를 함께 한 섬들이 장도, 일도, 무점도, 창금도 등이다.

사진 4는 1974년 4월 3일 인천시 관계자들이 주민들을 위문하기 위해 청라도를 방문한 모습이다. 당시 그 섬에는 50여 세대 260명

가량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교통편이라곤 해진호(18톤급)가 부정기적으로 운행되었고 전기는 80년 초에나 들어갈 정도로 낙도였다. 해발 47m의 작은 산에 둘러앉은 초가집들의 모습이 당시 섬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5는 위문품을 전달받기 위해 섬 주민들이 당시 청영초등학교의 분교인 청라분교 운동장에 모인 모습이다. 아이들은 수업 중이였는지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어른들만 모였다. 앞에 놓인 위문품이래야 밀가루 몇 포대와 농기구, 그리고 축구공 등뿐이다.

이제 그 섬은 백골이 진토 되듯 깡그리 뭉개져 청라국제도시의 뒹이 되었다. 청라도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청라국제도시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겼다.





##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 더 이상은 힘들어!”

### 수도권매립지, 2016년에 종료한다

서구 백석동에 조성해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2월 10일 개장했다.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는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5%, 우리 인천시가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매립종료 기한은 오는 2016년이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법적 종료기한을 두고 서울시가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92년이면 20년이 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천시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고, 현재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매일 쓰레기 수송도로를 통해 매립지를 왕복하는 1천700여 대의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교통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인천시의 2012년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7\mu\text{g}/\text{m}^3$ 로 국가환경기준 ( $50\mu\text{g}/\text{m}^3$ )을 준수했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수송도로가 통과하는 인접 지역 검단축정소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58\mu\text{g}/\text{m}^3$ 으로 국가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립지 악취는 황화수소 농도의 경우 침출수처리장이 일반지역에 비해 669배,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448배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종량제를 실시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매립지 공간에 여유가 생겼으니 2016년 종료 예정인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언론을 이용해 시민에게 매립지 연장 사용의 당위성을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매립장 주변 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 공해에 시달려 온 만큼 1989년 매립지 조성 당시 합의한 대로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서울시가 빠른 시일 안에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 인근 거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으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이하 매립지연대)'는 지난 5월 6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난했다. 매립지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인천시와 서울시가 상생하는 길”이라며, “서울시가 매립지 사용 연장 추진을 그만두지 않으면 지역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타워에 유엔기구 입주

우리시는 지난달 31일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I-Tower)에서 유엔 기구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로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훈련센터(UN APCICT),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UN CITRAL), 유엔 재해경



감국제전략기구(UN ISDR)가 입주했다. 아이타워를 국제기구 집적 건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다른 기구의 입주도 잇따른다. 갯벌타워에 있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과 시가 새로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본부도 연내 입주한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72

### 중앙대 신캠퍼스 건립 협약 체결

우리시는 지난달 13일 중앙대·인천도시공사와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캠퍼스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검단신도시에 학교와 대학병원 등 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 또 우리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를 설치하고 도시개발 인·허가 승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기존에 합의한 '캠퍼스·캠퍼스타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사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시와 중앙대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 캠퍼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440-4692



### 박태환 수영장 생긴다

우리시에 박태환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수영장이 생길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14일 시청에서 박태환 선수와 지역수영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영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용 신설경기장인 연수구 문학수영장에 박태환 선수의 이름이 포함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박태환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문학수영장의 명칭을 공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수영장은 제 9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18일 이전에 개관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박태환 선수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소속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와 협약을 맺게 됐다”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양자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1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안 마련

우리시는 지난달 7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 16개 지역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안을 마련했다. 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제협력관, 중소기업지원과장, 산업기반과장, 유관 기관, 입주기업대표 등 10명으로 대책단을 구성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및 이차보전, 거래선 이탈방지를 위한 인천시장 명의 서한문 발송, 공장 임대 등 대체부지 마련과 시설대체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방안으로 보증료를 인하, 보증비를 상향조정, 입주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심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인내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362

한편 이번 전달식은 비영리민간단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주요경거장, 역세권 등의 시설물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문의 : 도시디자인추진단 ☎440-4796



## 교육위원회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제 208회 임시회에서 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청원 1건과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2건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9일 청원 및 조례심의에서는 구재용 의원이 소개한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 남교 설립 촉구 청원’을 채택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외 4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표결한 결과 원안부결됐다. 또한 30일 예산심의에서는 본 예산보다 349억원이 증액된 1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등 6개 사업비의 계수 조정을 통해 교원 업무경감 사업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편성했다.



## 소비자 권익증진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성만 의장의 주재로 김영분 부의장 외 3명의 의원들과 인천시 관계자, 소비자 관련 단체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해결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으로 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 인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의 합리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력 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만 의장은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시, 소비자 단체, 의회가 협력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당부했다.



## ‘오늘은 내가 시의원’ 학생모의의회 체험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인천주안초등학교 학생 28명은 지난 달 9일 시의회에서 학생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시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오늘은 내가 시의원”이라는 마음으로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2개의 처리안건을 상정하여 시의회 의사진행과 동일한 회의절차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학교 현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문제’와 ‘학교 도서관 만화비치안’에 대해 학생들 입장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정질문으로 자전거 통학실시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간의 심각한 욕설사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5분 자유 발언도 있었다.

## 결산검사위원회에 위촉장 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2012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향후 검사일정 및 주요 착안 사항 등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성만 의장과 이한구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들과 오병집 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수 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등 시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성만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월 8일부터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전용철 의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결산검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 미주지역 선진 소방시스템 벤치마킹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동안 남북간 긴장정세로 인해 연기했던 해외시찰을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위원회는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랜틱 시티를 방문, 선진 소방시스템 구축 현황과 자치단체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평구 청천동 지하물류창고에서 화재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우리시 소방체계와 소방장비의 열악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의 소방업무가 발전된 선진도시의 소방시스템과 장비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해외시찰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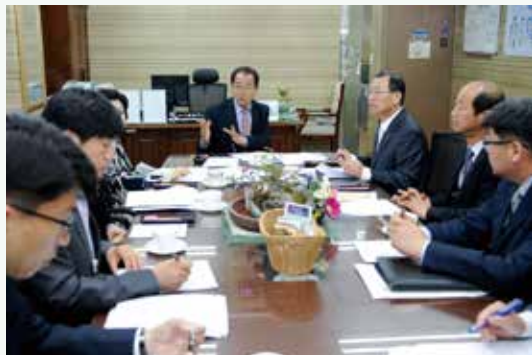
이번 선진 소방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현장 소방대응시스템과 소방공무원의 보전·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향 등이 적극 발굴·모색됐다.

## 물이용 부담금 인하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물이용 부담금을 인하하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업위는 수정 결의안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폐쇄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며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위는 “수질을 정화한다며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갔지만 팔당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수질 악화로 추가로 드는 고도 정수비용을 인천시에 전액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산업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 협동조합 연구모임

인천광역시의회는 강병수 의원을 대표로 김영분 부의장, 신현환 의원, 이한구 의원이 뜻을 함께 모아 협동조합 연구모임을 창설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성기 푸른생협 상무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 15명이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고, 3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회 정기 모임을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지난달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전달 방식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준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교육 내용은 내게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무슨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등 실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지난달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찬 서울대교수의 기초강의를 시작으로 7월 21일까지 총 7회의 교육, 1회 현장학습, 1회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동조합 강익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 전국 사이클선수권대회로부터 감사패

이도형(민·계양1)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인천 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인천 사이클 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서운체육공원에 소재한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국제벨로드롬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 사이클연맹으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전국의 사이클 선수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뜻 깊은 자리에서 받은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다”며 “사이클을 비롯한 인천의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립박물관 시민참여 방안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인천시립박물관을 방문,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참여확대 방안마련을 하고자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성만 의장은 인천시립박물관의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상시 리뉴얼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의회에서도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역사실, 공예실, 전시실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직원을 격려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 Info+box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인천지방경찰청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만들기로 정해짐에 따라, 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 1.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성폭력특별수사팀을 발족(2.18)하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일체접점을 통해 장기 소재 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추적수사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2개소(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는 성범죄자 공개사이트(www.sexoffender.go.kr)로 확인가능하다.



#### 2.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희망폴리스’ 등의 활동으로 학교에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17센터에서는 경찰, 여성가족부, 교육부 합동으로 상담은 물론 피해자 심리 치유까지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여 가해학생도 우리의 자녀처럼 보호하고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



#### 3.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경찰부터 가정 내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 ‘가정폭력 인식 전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범죄취약계층인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결혼 이주여성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포켓형 ‘실무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현장근무 경찰관이 소지하도록 하였다.



#### 4.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사회’

‘부정·불량식품 100일 집중 근절기간’(3.8~6.15)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 중 육우를 한우로 속여 학교 급식자재로 납품한 급식업체 대표 등 35명을 검거하였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455-2425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아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 :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참여방법**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표명(자격부여)

##### 참여환자혜택

- 질환관리 의사표명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 → 20%)
-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 자가측정기 대여
  -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SMS) 등

문의 : 1577-1000, 550-6213, 6214

#### 제3기 국민추천포상 안내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을 운영한다. 우리 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 바란다.

#####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단, 본인 추천은 안됨)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이나요

니눔을 실천한 분 : 사회봉사,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안전에 기여한 분 : 인명 및 재산 구조,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희망을 전한 분 : 역경 극복, 가족에 실천, 국제구호 등  
☞ 이런 경우는 제외

- 독립운동·보훈·참전유공,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 추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중 추천 가능

2013년 포상은 2013년 7월 1일까지 접수된 건 대상

##### 어떻게 추천하면 되나요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안전행정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

##### 추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사실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

##### 포상은 언제 수여하나요

제3기 국민추천포상은 2013년 12월 포상 예정

문의 : 02-2100-3169

## Info+box

#### ‘여성의 광장’ 제3기 수강생모집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은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어학 및 문화교양 강좌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

**과목** :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문화·교양교육, 토요강좌, 단기과정

**교육기간** : 7월 3일(수)~9월 28일(토) 3개월 과정

**모집대상** : 18세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필라테스, 재즈&방송댄스, 태보&다이어트댄스, 벨리댄스를 제외한 전과목 20% 범위 내에서 남성도 모집)

**접수기간** : 6월 10일(월)~7월 17일(수)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신청 시 수강료를 결제해야 수강등록 완료됨

**신청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여성의 광장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인터넷 수강신청)

**신청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통합예약현황

문의 : 815-7101~3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여성의광장’ 입력

#### ‘우울과 몽상에 대한 보고서’ 전시

사진전문 갤러리 바다리에서는 허남준 사진전 ‘우울과 몽상에 대한 보고서’ 전시를 갖는다. 사진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전시명** : 허남준 사진전 ‘우울과 몽상에 대한 보고서’  
(2013년 ‘문학과 사진’작가 공모 당선작)

**일시** : 6월 28일~7월 3일

**장소** : 사진공간 바다리

#### 인천관광안내 전문인력양성사업 참가자 모집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인천관광서비스 산업분야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지역 내 관광안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모집과정

과정명	모집인원	모집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인천관광안내 전문인력양성사업	30명 (남 9명 / 여 21명)	~ 6월 18(화) 18:00까지	6월 24(월) ~8월 12(월) 1일 6교시(주5일) 09:30~16:30	인천 재능대학교

##### 교육내용

한중교류협력현황/전망,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국사, 인천시 개요, 인천시 지자체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교육(현지실습포함) 등

##### 참가안내

**지원자격** : 구직 중인 인천시민,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중 중국어 가능자, 관광분야 전공자 및 여행안내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중국어 공인어학시험 성적보유자 우대  
**참가비용** : 교육비 전액 무료(단, 교재비 10만원, 수료 시 전액환급)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메일(kweaincheon@hanmail.net) 접수  
문의 : 260-3605

#### 권역별 무료지식재산상담소 운영

인천지식재산산업센터는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기업, 학생을 대상으로 특허, 브랜드, 디자인에 관해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다.

**운영기간** : 2월~12월 매주 화요일, 14:00~17:00

**대상** : 인천 시민, 중·소기업 임직원, 학생

**방법** : 매주 화요일, 권역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무료 지식재산상담 운영  
신청접수 후 상담가능(신청서 양식 별첨)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의 기업애로상담실과 통합운영(월 1회)  
문의 : 810-2876



## Info+box

### 6월 문화행사, 당신을 부른다

미추홀도서관은 6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접수문의
쑈 체험 행사 「애들아! 쑈에서 놀자」	6월 1일(토) 10:00	남동 문화공원	초등 3~4	5월 20일~마감 시 (홈페이지 접수) 440-6662~4
시민건강강좌 「소아사경증」	6월 8일(토) 10:30	세미나실1 (3층)	전체	5월 27일~마감 시 (홈페이지·방문·전화 접수) 440-6662~4
원화전시회 「손톱깨물기」	6월 10일(월) ~23일(일)	로비(1층)	전체	440-6662~4
서양화가 「임경식작가전」	6월 12일(수) ~30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33
인형극 「의좋은 형제들」	6월 15일(토) 14:00	강당 (지하1층)	전체	6월 3일~마감 시 (홈페이지 접수) 440-6662~4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전자도서관 e-book/오디오북) 스마트폰(어플/앱 다운로드)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1층)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화관역(지하2층) 미추홀도서관(1층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타관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 ‘명불허전’새 단장, 4대 MC 송지현

방송인 송지현과 조은유 아나운서가 OBS ‘명불허전’의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다. 2010년 1월 방송을 시작,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대해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명사의 숨은 뒷이야기와 그들의 ‘명불허전’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1월 방송을 시작한 OBS ‘명불허전’은故 박완서 소설가,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 탤런트 이순재, 송승환 PMC 대표 등 정치, 사회, 예술,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출연해 그들의 삶과 성공을 이야기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명불허전’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15분에 방송한다.

#### OBS채널 안내



###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생 모집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접수기간
호텔·관광 서비스 전문가 과정	6월 17일~7월 26일 (전원 합숙 수업)	80명	6월 7일까지
글로벌 샵 매니저 과정	7월 29일~8월 30일 (전원 합숙 수업)	80명	7월 20일까지

**모집대상** : 인천거주 청년 미취업자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 관광 및 문화 서비스 실무교육  
실무 영어, 중국, 일어회화 및 취업컨설팅 등

**교육장소** : (재)글로벌에듀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문의** : 564-8089

### 서부여성회관 방학특강 참여하세요

인천시 서부여성회관은 여름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방학특강과 다양한 테마특강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3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접수기간** : 5월 31일~7월 13일(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 : 7월 1일(월)~9월 28(토), 3개월과정

**모집인원** : 8개 분야 72개 과정 1천530명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의 인천시 거주시민

(정원의 20% 범위 내 남성수강 가능)

**문의** : 458-7360~5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부여성회관’검색

### 금연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우리시는 금연의 조기정착을 돕는 금연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기간** : 연중

**위촉시기** : 금연의 날(5월 31일)기념(6월 13일 예정)

**장소** : 인천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활동범위** : 인천시 관내(금연공원 등)

**위촉·구성인원** : 총 200명

계	금연지킴이	금연홍보기자단	금연모니터링 지원단	청년지원단 (SMOKE FREE)
200	50	50	50	50

**문의** : 440-2725

## Info+box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해찬나래 추가모집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학생을 추가모집한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참여 바란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영어학습 프로그램	2013년 특성화 프로그램
2교시	동아리활동	학습보충	국어	자치활동		
3교시	급식					자연힐링체험활동
4교시	모듬북 우쿨렐레 방송댄스	영어	국어	수학	체육/미술	
5교시		수학	과학	영어	체육/미술	

**문의** : 777-7942

### ‘인천 SNS 시민미디어방송’ UCC 및 CUG 공모

인천광역시시는 시민들이 프로슈머가 되어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PC, SmartTV, 모바일, 대형 전광판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시민미디어 방송서비스 영상을 공모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UCC 분야	CUG 분야
정 의	UCC (User Created Contents)는 미디어 순수 창작물	CUG는 영상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방송편성 (일간, 주간, 월간 등) 및 방송채널을 운영
공모내용	UCC 1편 이상 공모신청서 1부	샘플 영상 1편 이상 공모신청서 1부
상금	총 100만원	총 300만원
응모자격	제한 없음	학생(중, 고, 대학(원)생 등)
공모주제	자유 주제	
공모규격	제한 없음	
공모기간	5월 20일~6월 9일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월 14일(금) 예정	

**문의** : 440-3264

### 문화의 보고 ‘송암미술관’에 오세요

인천시립송암미술관은 송도 청량산 끝자락 넓은 서해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 옆에 자리한다. 미술관에 들어오면 다양하고 귀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전시실** : 시대별로 토기, 다양한 불상 및 민속용품 등

**2층** : 근대 화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 전시 등

**2층기획전시실** : 사군자(四君子)를 중심으로 墨香에 꽃피운

梅蘭菊竹'전(4월 16일~9월 22일) 전시

사군자 회화대회(6월 4일~8월 25일)를 개최할 예정

**교육 및 체험활동** : 송암예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여름방학 창의체험활동, 성인강좌 등

**문의** : 440-6781

### 연안부두 해양광장 토요상설 공연

한국예총 인천시지회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토요상설공연’을 연다. 토요일 오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공연을 즐겨보자.

**행사일시** : 5월 4일~7월 6일(매주 토요일), 총 10회

15:00~17:20

**행사장소** : 연안부두 해양광장(야외무대)

**행사내용**

**체험행사&시식회** : 15:00~16:00

인천 관광홍보부스 운영, 강화특산물 생인삼주스 및 닭강정 시식회

녹청자 물레체험, 강화 특산물 왕골공예, 사진촬영인화

네일아트, 캐리커처 등

**공연 및 일정별 세부내용** : 16:00~17:20

**문의** : 868-7196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페이스북 & 모바일웹 이벤트

인천사이버교육센터(www.cyber.incheon.kr)는 시민들의 편리한 학습을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웹서비스와 새로운 온라인 소통도구인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가자격**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회원

이벤트 응모방법	① 인천사이버교육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cyberincheon) '좋아요' 클릭!
	② 이벤트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공유하기'
	③ 이벤트 페이지 참여 댓글에 인천사이버교육센터 아이디 기재하여 참가
당첨자 선정방법	응모자 중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당첨자 수	100명
당첨 상품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

#### 2. 모바일웹에 학습후기 남기고 교재 받자!

이벤트 응모방법	① 인천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웹(m.cyber.incheon.kr)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좌를 듣는다.
	② 모바일웹사이트 학습후기 게시판에 후기 글을 올린다.
	③ 모바일웹사이트 이벤트 게시판에 상품을 선택하고 참여글을 올린다.
당첨자 선정방법	응모자 중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당첨자 수	각 20명씩 40명
당첨 상품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1세트 각 20명씩 40명

**당첨자 발표** : 6월 10일(월) (홈페이지, 페이스북 발표)

# Book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  
미치 앨범 | 21세기북스 | 2013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우화. 시간의 비밀을 풀어낸 이 환상적인 우화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시간의 아버지’ 도르를 현대 뉴욕의 한복판에 등장시켜 그에 관한 신화와 전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도르가 만난 두 사람, 영생을 꿈꾸는 백만장자와 자살을 결심한 여고생을 통해 시간의 기원과 본질을 풀어나간다.



**그리운 내가 온다**  
박범신 | 맨그로브숲 | 2013

터키에서의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다. 수년 전 한 방송사의 제작팀과 동행해 터키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단상을 정리하고 다듬어 엮었다. 아름다운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시작되어 역사의 세례를 거쳐 온 아나톨리아 중부 고원지대를 흐르다가 마침내 그리운 지중해 남부 해안을 돌아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여정을 저자의 꿈과 함께 그려냈다.



**하루 10분, 엄마의 행복한 시간**  
안도 후사코 | 글담 | 2013

하루 10분, 지치고 상처받은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에 대한 육아전문 카운슬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엄마노릇이 편해질 수 있는,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인 ‘나’를 먼저 챙길 것을 조언한다. 엄마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육아를 고민할 때 아이는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신시아 A. 몽고메리 | 리더스북 | 2013

‘당신은 전략가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수업은, 100년의 경영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케이스 스터디, 최고의 전략가로 이끄는 8개의 결정적 질문, 질의 응답식 압박을 통해 서서히 전략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저자는 기업의 리더가 최고전략가로서 해야 할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전략이 기업이 하는 일과 기업의 미래를 빛어내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이런 사람 있었네	이용남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2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심리 읽기	오이겐 드레버만	교양인	재투성이에서 라퐁텔까지 심층심리학으로 들여다본 여성 심리의 비밀
3	내 마음 아프지 않게 남의 마음 다치지 않게	프라유키 나라테보	예담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스님의 지혜
4	전설의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1~2)	니얼 퍼거슨	21세기북스	세계 금융의 지배자 로스차일드가의 8대에 걸친 신화를 날날이 파헤친다!
5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신시아 A. 몽고메리	리더스북	하버드경영대학원의 전설적 전략 강의
6	심대,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유	이광식	더숲	별과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와 과학적 이야기
7	하루 10분 엄마의 행복한 시간	안도 후사코	글담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한 따뜻한 행복육아 이야기
8	뉴욕 그리다, 빠지다, 담다	박아람	무한	마음 가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뉴욕아트에세이
9	언문세설	고종석	새움	타협하지 않는 문장가가 들려주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한글 이야기
10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	미치 앨범	21세기북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우화
11	그리운 내가 온다	박범신	맨그로브숲	터키에서의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
12	잔혹한 왕과 기묘한 왕비	나카노 교코	이불	유럽 5대 왕실에 숨겨진 피의 역사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소설가 안보운



1981년 인천 출생  
2005년 소설 ‘악어떼가 나왔다’로 데뷔

수상  
2009 제1회 자음과모음 문학상  
2005 제10회 문학동네 작가상

주요저서  
『악어떼가 나왔다』 (2005), 『오즈의 닥터』 (2009)  
『사소한 문제들』 (2011), 『우선멈춤』 (2012)  
『모르는 척』 (2013)

# Incheon Life Story

## 인천 사는 이야기



### 작은 소원

따뜻한 5월의 봄날. 수백 년 살아 온 고목이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 구멍문을 자상하게 열어 주었습니다.

이종민 부평구 부일로



### 외할아버지와 손자

외할아버지를 유난히 따르는 아들. 연안부둑가에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네요. 행복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김만옥 남구 낙섬서로



### 도심에서 만나는 휴식

송도센트럴파크에는 예쁜 꽃사슴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이기훈 연수구 원주대로



### 마음의 노래

남동구청에서 전국노래자랑 예심이 열렸습니다. 예심이 끝난 자리. 누군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놓은 가사지가 남았습니다.

정아영 남동구 인주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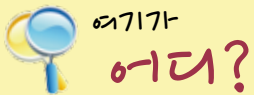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자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이 곳에 유엔기구가 동지를 뒀습니다.(송도)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월미도

유석재 남동구 용천로 / 이정옥 대전시 대덕구 김호경 부평구 장제로 / 오재영 연수구 함박외로





## 순국선열의 넋 잇든

### ‘물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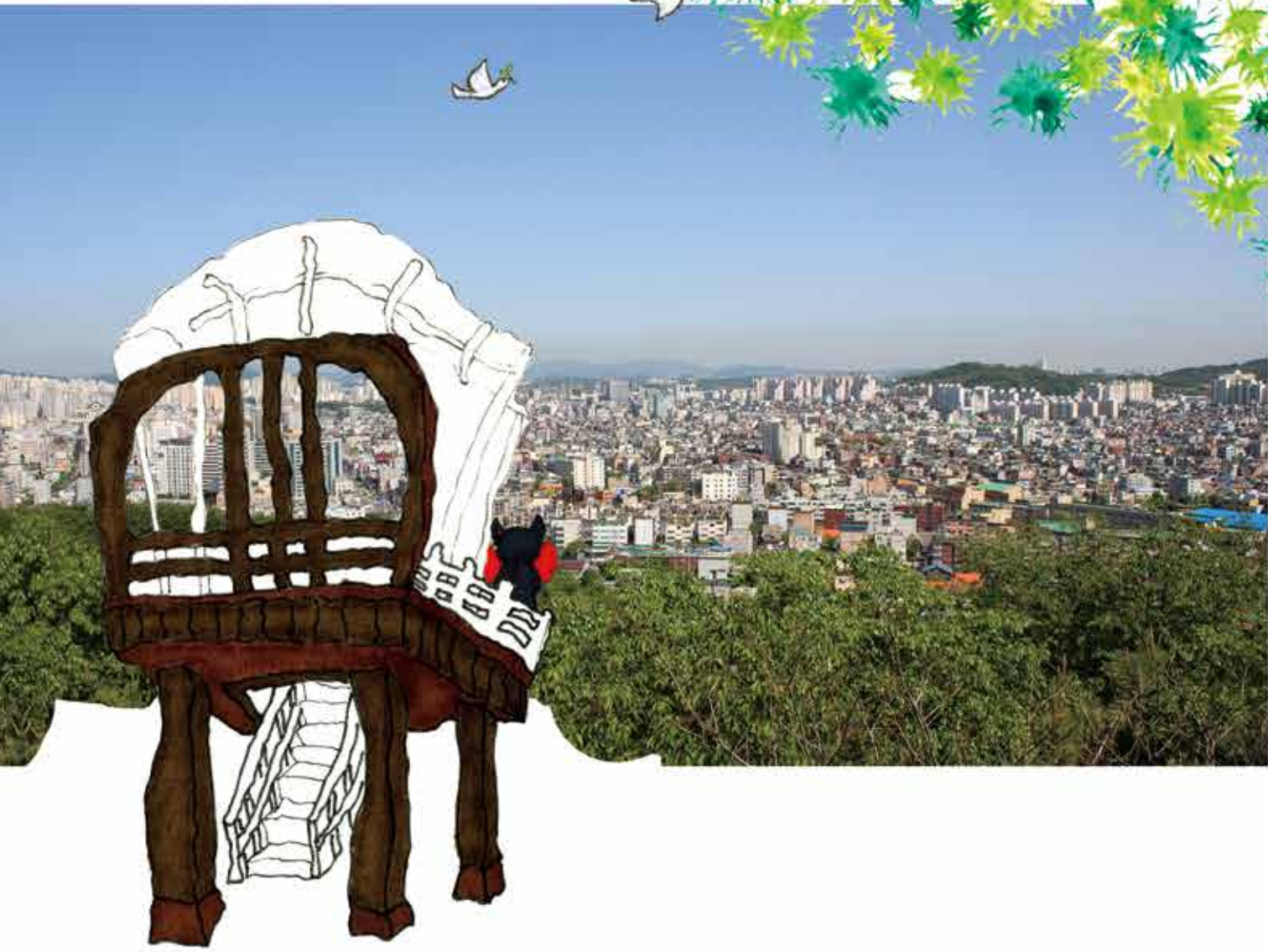
가까워진 태양이 나뭇잎에 부서진다. 푸른 나무가 그늘 텐트를 치면 도심의 공원은 자연휴양지가 된다. 수봉산은 원래 ‘水峯山’이었는데 이제는 ‘壽鳳山’으로 한자표기가 바뀌었다. 예전 주안역 뒤편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멀리서 이 산을 보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봉우리처럼 보였을 터, 그래서 ‘물봉우리’가 아니었을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작은 봉우리. 소박하지만 운치 있어 보이는 이름이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이 잇든 곳, 그 봉우리를 올랐다.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입구부터 가로수 길을 따라 걷는다. 맑은 여름 냄새가 코끝에 스친다. 익숙한 6월의 내음이 오늘따라 더 상쾌하다. 산책하듯 수봉공원을 오른다. 높이 104m. 한걸음에 정상을 오른다. 평탄한 정상에 다다르면 특이한 모양의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거인국의 의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망대다. 원래 이 자리에는 알록달록 비둘기 집이 있었다. 그런데 비둘기가 최근 사람한테 좋지 않다고 해서 그들의 집을 허물고 전망대를 세웠다.







줄지에 홈리스가 된 비둘기는 공원바닥을 이리저리 떠돌며 하루 식량을 찾으려 다닌다. 길고양이 도도와 비슷한 신세 같아 측은한 마음을 갖고 전망대를 오른다. 의자전망대라고 해서 앉아서 전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의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탁 트인 시야에 마음이 땡 뚫린다. 뷰가 굿이다. 눈앞에 인천 시내가 풍경화처럼 펼쳐져있다. 저 멀리 인천시청도 보이고 더 멀리 송도국제도시도 있다.

공원 한쪽에는 자연학습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생태교육을 할 수 있다. 자연 숲 속에서 느끼는 생(生) 교육현장이다. 이곳은 일 년 내내 야생화를 비롯해 원추리, 양지꽃, 물레나물, 패랭이, 백합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시민들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자연학습과 도시숲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처에는 새 둥지가 있다. 멋진 깃털을 펼친 공작새 등 60여 마리의 새들이 모여 산다.

수봉공원에서는 자연교육뿐 아니라 역사교육도 가능하다. 인천시 통일관에 들어서면 북한의 의식주와 경제, 사회 등을 엿볼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통일의 필요성 등을 관람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를 떠올린다.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정말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민족의 단절된 모습이 가슴 아픈 일인 건 틀림없다. 북한의 간행물들 중 ‘혁명의 역사’라고 쓰인 문구를 보면 웬지 모를 위화감이 들기도 하지만, 학교 교과서를 보면 우리의 것과 비슷해 친근하다. 다른 듯, 같은 듯 오늘날만큼 휴전선의 경계도 흐릿하다.

휘악~. 수봉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화살 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산자락에 활터가 있다. 인천공도협회 국궁 훈련장 ‘무덕정’이다. 전쟁 중에 활은 병기가 되고 평화 시에는 놀이가 된다. 활쏘기는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은 장수 운동으로 알려져 많은 동호인들이 있다. 요즘 무덕정에서는 편사(便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예부터 무인들이 편을 짜서 활쏘기 재주를 겨루는 시합이다. 궁금중이 발동해 조심스럽게 무덕정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화살이 과녁에 맞는 순간 ‘관중이요~’라는 소리와 함께 ‘지화자~’를 하며 흥겨운 분위기다. 승패를 가리는 시합이 아니라 그동안 연습한 활 실력을 뽐내며 노는 잔치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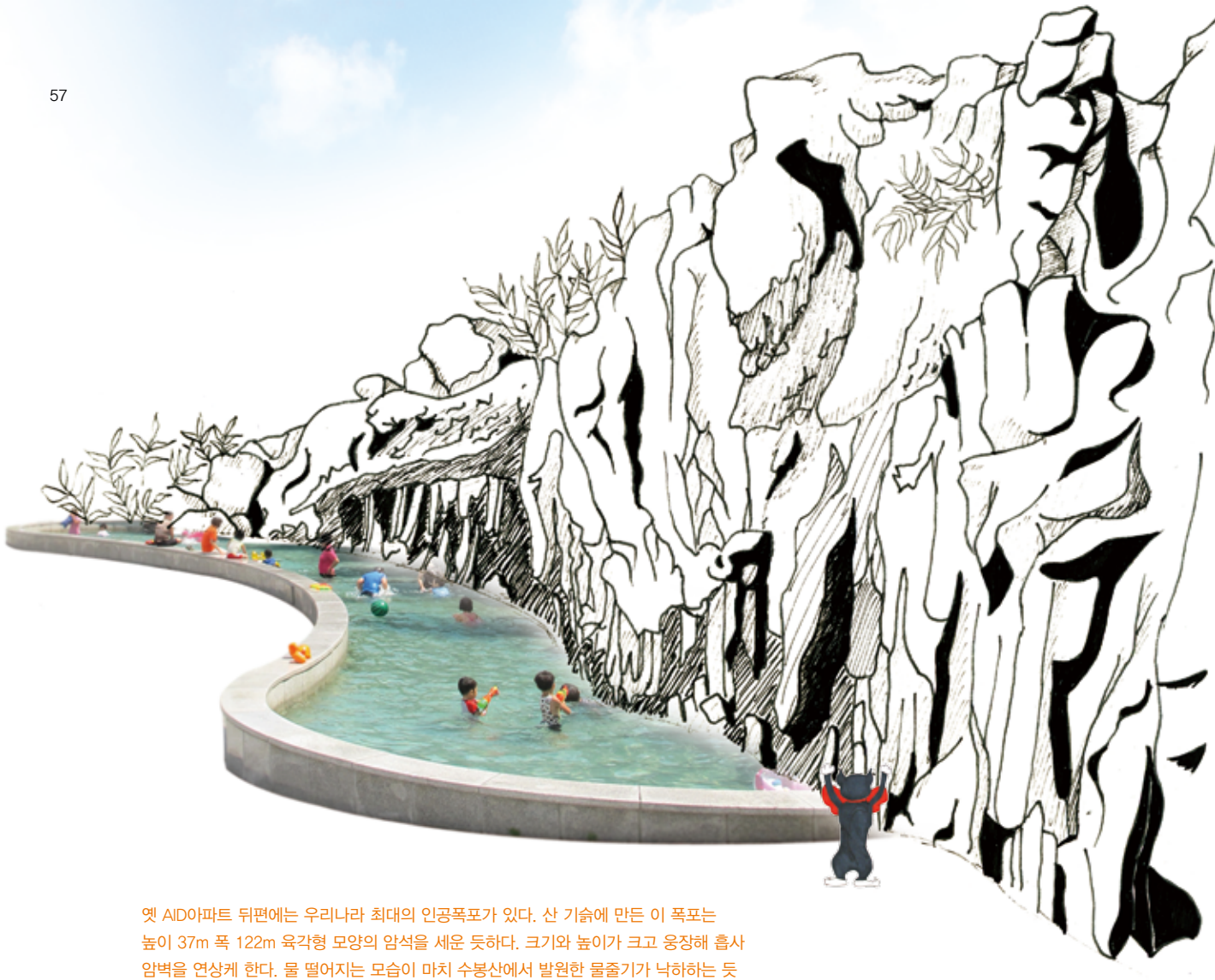


현충탑은 전쟁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인천 출신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72년 9월 15일 건립했다. 자유공원에 있던 충혼탑을 수봉공원으로 이전하면서 현충탑으로 세운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현충탑의 모습이 순국선열들의 기개를 닮았다.

수봉공원에서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또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다. 6·25 전쟁 당시 일본에 유학을 가 있던 유학생들과 재일동포의 자녀들이 조국을 구하고자 전쟁에 참전해 자신을 희생했다. 매년 9월이면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641명의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해 이 기념비 앞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요즘은 ‘전쟁나면 해외로 가야지’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국궁장을 지나다 보면 아이들 소리가 들려온다. 작은 놀이터다. 원래 수봉공원에는 70년대에 당시로서는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었다. 이제 그 흔적은 다 없어지고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놀이터엔 아이는 물론 주인과 산책 나온 반려견들도 보인다. 지네시소, 풍풍으로 익숙한 트럼플린, UFO놀이, 스카이 뱅뱅 등 일반 놀이터에선 볼 수 없는 놀이기구들에 신난다. 똥똥하게, 훌쩍하게, 길쭉하게 보이는 요술거울 앞에 서본다. 똥똥이 거울 앞에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선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옛 AID아파트 뒤편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다. 산 기슭에 만든 이 폭포는 높이 37m 폭 122m 육각형 모양의 암석을 세운 듯하다. 크기와 높이가 크고 웅장해 흡사 암벽을 연상케 한다. 물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수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낙하하는 듯 같다. 한여름 이곳은 동네 아이들의 놀장으로 변한다. 폭포 사이에 2~3명이 걸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자연스럽게 폭포 안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계단을 오르면 거대한 뒤편 폭포에 이르고, 이어 인천시내를 한눈에 품을 수 있는 공원 정상으로 오를 수 있다.

설렘설렘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올랐던 수봉공원. 곳곳을 둘러보니 후손들에게 애국 애족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현충탑을 비롯해서 인천지구전적비와 재일학도의용군비 그리고 이산가족의 애환을 말해 주는 망배단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자유회관까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시설들로 꽉 차있다. 유난히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나 있는 우리 인천, 보훈의 달 6월 수봉공원에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어떨까.

##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악속’ 지켜야

글 노중선 인천서구환경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수도권 매립지는 1989년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시가 2016년 매립종료를 약속하며 매립계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시·군·구 2천400만명이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기간은 2016년 앞으로 3년 남았다. 여의도 면적의 113배 세계 최대 규모로 서울 48%, 경기 35%, 인천 17%로 20여 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매립을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라고 부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인천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공해 발생으로 환경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살고 있다.

2011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악취관련 민원은 대략 6천 건 정도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면서 도로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날리며 차량에서는 침출수가 수도 없이 나오고 수송로 주변은 비산 먼지와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에 인천시민 특히 서구민은 울고 있다. 특히 ‘악취와의 전쟁’이 있었고 급기야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1인 시위를 하며 국회 정문에서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0월 악취 조사를 했던 환경부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를 보면 수도권 매립지 상부에서 지정 악취 물질인 황화수소 농도는 사람의 최소 감지 농도인 0.5ppm의 1천760배(881.5ppm)로 측정됐다. 매립지 주변에서 거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가운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쓰레기가 매년 적발됐다. 폐합성수지나 폐비

닐, 폐목재 등 매립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20여 년 동안 매립했고, 그로 인한 악취 유발은 물론 매립지 수명 단축, 지반 약화, 침출수 수질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해 반입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매립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서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매립지 반경 5km 이내에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 루원시티,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있고 주변에는 70만 대단위 아파트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으며 대한민국 관문인 서울로 가는 위치다. 이곳에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급기야 매립기간이 다가오니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트집을 잡고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리는 일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서구의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면 환경전쟁이 또 다시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환경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인천시를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 인천의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데 동참하여 우리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서 그 결과를 환경부와 서울시에 보여 주어야 한다. 2016년 매립종료와 함께 인천시의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쓰레기는 각자 처리해야 한다.

인천시민 특히 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밑바탕이 된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는 결코 자량이 될 수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약속대로 ‘2016년 매립 종료’를 매듭지어야 한다.



## ‘해외’로 프자

날, 참 좋다.

어머니는 불현듯 여행이 가고 싶어지셨습니다.

근데... 어딜 가지?

편안한 신발에 작은 가방 하나 챙겨들고 나섰지만 막상 정보가 없습니다.

자식들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바닥에 침뱉고 검지와 중지로 내리칠 수도 없고.

아, 맞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본 커다란 관광안내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해외’로 떴습니다.

인천 앞바다 건너 섬마을, 해외(海外).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여권(女權) 잘 챙기시고.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